

다시 뛰는 부산청년불교!

6월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 5000명 청년불자 동참 발원



선우아침기도모임의 청년불자들의 열정적인 기도 모습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춘분을 하루 앞둔 3월 20일 새벽 6시, 10여 청년들의 우렁찬 관세음보살 경근 소리가 부산 법계정사 법당의 차가운 새벽공기를 가른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하재

훈, 이하 대불청)는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100일 앞둔 3월 3일부터 ‘49일 선우아침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기도모임은 매일 오전 6~7시 관세음보살 경근, <신묘장구 대다라니>·<반야심경>독송, 발원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기도를 마치고는 다함께 둘러앉아 차담을 나누고 각각의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간다.

‘49일 선우아침기도모임’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불교청년대회를 통해 청년 불자 부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약의 기회를 찾는 자리다. 대불청 부산지구는 지난 10년간 이 대회를 3번 이상 유치한 경력이 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제29차 대회에 1300명도 채 참가하지 않은 것을 불교계 전반에 걸친 청년 불자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올해 5000여 청년불자 유치 및 성공을 발원했다.

순정현 부산 대불청 회장(불교 TV 부산지구장)은 “청년 부재로 인한 위기는 이웃종교도 마찬가지다. 청년 불교의 번영기인 70~80년대

와 달리 최근에는 놀이문화가 많이 발달해있고,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무한경쟁 시대에기에 청년들이 삶의 철학을 탐구하는 종교와 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청년들”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대불청 부산지구의 노력은 3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포교는 대부분 지회내 소모임 단위에서 이뤄지는 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각사불교청년회(회장 정경섭)는 1992년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인근 용두산 공원에서 무차별만 국수공양 봉사활동을 해 왔다. 대각사불교청년회는 부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년회다. 교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 ‘자원봉사축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1999년·2011년 ‘자원봉사대상’ 부산광역시장상 등 수상 경력만도 10여 개에 이른다.

대불청 부산지구의 신생 청년회인 여여선원불교청년회(회장 이윤희)의 포교 활동 역시 봉사활동이다. 2009년 3월 창립 이후 총 15명

의 회원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정기법회에 참석한다. 주말이면 어렵게 올주군 마하보디교육원(원장 능행)에서 농사와 후원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또 4월 중순 착공하는 병동 완공에 맞춰 호스피스 전문 과정을 밟는 등 보다 폭넓은 봉사를 준비 중이다.

박경수 대불청 부산지구 호법단장은 “청년회가 외양에만 치중하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과 신행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났다”며 “불법을 배우고 이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천에 옮기는 기본적인 신행활동이, 바로 대불청 부산지구의 제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대내외 청년불교의 쇠퇴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부산지구의 내실을 다져 신입회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6월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개최될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부산청년 불자들의 청량한 정근소리와 함께 한층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박지원 기자

부산개인택시 불자회

쌀 83포대 보시

부산개인택시 반야회(회장 차성대)는 3월 24일 부산 연산동 정수사(주지 원광)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반야회는 부산 남구소재 이동식 노인무료급식 ‘빨간밥차’ 외국인어린이 사회적응훈련 ‘아시 아동동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사찰 ‘허허원’ 등 총 8개 사회봉사단체에 20kg 쌀 83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제6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차성대 회장은 “참선과 염불, 간경 등 다양한 수행의 기회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법사 원광 스님은 “남의 입장이 돼 이해해주는 대자대비심으로 이웃과 사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3월 20일 부산 흥법사에서,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한국 전통요리 재미있어요!”

흥법사 국제부, 외국인 문화체험 ‘인기’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 정말 재미있어요.”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교육관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한국 대표반식 김밥과 떡볶이 익는 소리

까지도 맛갈스럽다.

3월 20일 오후 2시 흥법사 교육관에는 외국인 60여 명과 흥법사 국제부 소속 청소년과 부산대 불교 동아리 ‘불교바라밀’ 학생들이 뒤

섞여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한나래문화재단(회장 김건웅)은 흥법사 국제부와 함께 부산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시식하는 일은 어떤 문화교류보다 단연 으뜸이었다.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에 나선 외국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김밥을 정성껏 만들고, 고추장을 풀며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 한국의 매운맛을 맛봤다. 여러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맛을 내는 김밥처럼 분위기도 시간이 갈수록 맛을 더하는 듯했다.

흥법사는 “152화짜를 맞은 외국인 문화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알리는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17일에는 흥법사 교육관에서 외국인과 함께 ‘연등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찬불가는 나의 삶, 음성공양은 나의 행복”

이 남자, 요즘 부산 불교계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3월 17일 부산KBS홀에서 열린 ‘부산 민족문화수호대법회’서 그와 그가 이끄는 여성중창단의 음성공양은 1만여 사부대중을 감동시켰다.

부산 최초 우바이 중창단 ‘청공’을 지휘한 성악가 정성민(동의대 음악학과 교수)단장. 3월 23일 정성민 단장이 지휘하는 김혜여여정사(주지 도명) 합창단 연습실에서 그를 만났다.



청공 중창단 정성민 단장

▲ 불교와의 인연은.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경근기도를 하셨다.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린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할머니의 공덕이 내가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원동력이 됐다. 성악을 전공하면서 대중에게 찬불가를 가르쳐야 하는 인연이 다가옴을 느꼈다.”

▲ 부산 교계에서 ‘성악가 정성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민족문화수호대법회’ 때 1만 여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노래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0년간 부산 교계 곳곳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맡았지만, 이번 법회

때 객석에서 들려온 박수와 함성 소리는 눈물이 날 뻔 했다. 그날 이후 노래 잘 들었다는 격려인사가 부쩍 늘어 새삼 속스럽다.”

▲ ‘불교계 정마애’라 불린다.

“현재 흥법사(주지 심산), 관음사(주지 지현), 김혜여여정사(주지 도명) 및 ‘청공’ 여성중창단 등 총 9개 불교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다. 또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에서 15년째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 모 시립합창단이 연습곡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연습 전에 예배를 보는 등 종교편향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는데, 불자 성악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서양음악은 기독교가 강세이

던 중세의 종교음악에 그 뿌리가 있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라면 특정종교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현재 총무소임을 맡고 있는 부산지역 성악교수모임인 ‘솔리스트앙상블’에는 1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단 2명만이 불자다. 이것이 현실이다.”

▲ 특별히 애착이 가는 합창단이 있다.

“모든 애착이 간다. 굳이 하나를 뽑으려면 ‘청공’ 여성중창단이다. 9개 사찰 합창단에서 신심과 기량이 뛰어난 12명을 선발해 만든 중창단이다. 나를 믿고 교계 뿐 아니라 부산 전역의 여러 법회와 행사에서 음성공양에 동참해 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매월 부산교도소, 묘광사 군법당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대각사 청년회의 국수공양 봉사에도 참여하다보니 애착이 가는 것 같다.”

▲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찬불가와 음성공양은 나의 삶이고, 목숨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찬불가가 대중가요와 이웃종교의 가스펠처럼 전 국민이 흥얼거리며 즐겨 부를 수 있도록 찬불가의 대중화에 보탬이 되고 싶다.”

박지원 기자

불교문화 디지털로 재탄생

조계종부산聯,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창립

“불교문화원형의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을 향한 한국불교 문화상품의 개발 및 산업화에 힘쓰겠다.”

3월 18일 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관에서 열린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창립대회에서 이사장 정산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이 같이 말했다.

정산 스님은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발전의 승패를 가늠하는 최첨단 디지털시대로, 그에 상응하는 문화 콘텐츠 개발이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는 물론, 세계인을 향한 문화상품의 개발 및 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대회에는 일본 기타큐슈여자대 인간학과 아베 마사후미 교수, 제주대 주강현 석좌교수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원은 불교문화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업화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한다.

(051) 756-5793 박지원 기자

부산 부광 시각장애인 불자회 ‘눈높이’ 대회

부산 부광 시각장애인 불자회(회장 윤정섭)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의 화합을 위한 ‘눈높이’ 대회를 3월 20일 시각 장애인 총연합회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32개 팀 64명의 선수와 관계자 및 도우미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시각 장애인들의 ‘눈높이’는 숫자가 표기된 것가락 10개를 이용한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뒤편은 선수들이 대회 하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대회 후에는 시상식도 마련됐다.

박기범 기자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광사

연등승강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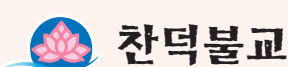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